

한류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한일 여성문제¹⁾

-국제교류와 협력의 일환으로-

權 珠 賢

1. 「한류」와 여성

「한류」라는 말은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과 그에 동반되어 한국제품의 소비로 확대하여 나가는 현상을 한 흐름에 비유해서 지칭하는 말이다.²⁾ 일본에서의 「한류」 역시 한국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점³⁾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일본의 「한류」가 과연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본의 대학생들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류」가 무엇인가 라는 구두질문을 한 적 있는데, 응답자들은 대부분 가장 먼저 한국의 배우와 드라마·영화 등의 이름을 든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문학작품이나 상품소비 등에 관한 언급은 없어, 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문화가 일본 한류의 전면에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한류붐에는 드라마·영화 이외에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드라마와 관련된 관광상품이나 한국어부분의 관심은 팔목할 만큼 늘었으며, 대중가요의 진출도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⁴⁾. 하지만 코메디분야의 진출은 아주 미미하다⁵⁾. 한편, 한국문학부분에서는 소설가로는 이문열, 김훈, 공지영, 시인으로는 안도현, 최영미 등의 작품이 번역소개되고 있고, 그 외 서적부분도 사진집이나 드라마작품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문학부분은 일본문학이 한국에 소개되고 한국문학에 영향을 미친 것에 비하면 아직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여타국과는 달리 일본의 한류는 아직 전자제품이나 휴대전화 등 한국상품의 소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듯하다.

2006 년을 고비로 일본의 「한류」붐은 그 상승기세가 약해진 듯하나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반향과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하나의 시대적 현상으로 매김하고 그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과 해석이 필요한 것은 붐이 생겨난 현실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대변하기⁶⁾ 때문이다.

한류의 원인으로 꼽아지는 것은 배우에 대한 관심, 흥미진진한 스토리, 드라마로 보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거에 대한 향수, 등이다⁷⁾. 그런데, 드라마의 수요자가 중고년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드라마와 여성문제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거니와, 한류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는 여성들의 의식의 근거를

더듬어보며, 이들이 무의식 속에서 표출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연구서와 논문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다.⁸⁾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류드라마·영화와 여성문제의 관계 대한 분석과 필자 나름대로 조사한 소규모의 앙케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여성문제의 연원을 역사적 현실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현실과 환타지속에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실제적으로 대중에게 어필되는 요소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실 확인이다. 자신을 비롯한 주변사람의 삶과 다르지 않는 생활현장이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며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타지이다. 자신의 주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지만 평소 자신이 꿈꿔왔던 인물상이나 장소, 사건이 드라마 속에서 재현될 때, 선망의 시각으로 보게 되며 대리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류드라마에는 이 현실과 환타지가 ‘있을 법한’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존재가 드라마 속 주인공인데, 이들을 분석하여 한류드라마가 어느 정도의 이상적 현실을 대리구현하고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 실제성을 대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류드라마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조사에서 나온 드라마 및 NHK 등 지상파 방송국의 전파를 탄 것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한국어문화관련 수업에서 가장 흥미있게 보았다고 대답한 영화나 드라마를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⁹⁾ 여성 30명, 남성 4명, 계 34명의 적은 인수의 집단이나 1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연령별 취향과 드라마 선호경향을 살펴 볼 수 있었다.(표 1) 여기서도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여성이었다¹⁰⁾.

	남	여
10 대	1	2
20 대		4
30 대	1	3
40 대		5
50 대		9
60 대	1	5
70 대이상	1	2
계	4	30

표 1) 한류드라마에 대한 앙케이트조사집단의 연령분포

분포되어 있어 연령별 취향과 드라마 선호경향을 살펴 볼 수 있었다.(표 1) 여기서도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여성이었다¹⁰⁾.

각각의 질문에는 복수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먼저, 한류 드라마 중 무엇이 가장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각각 50%와 53%로 가장 많았고 전 연령층에 분포하고 있어서, 이 두 드라마가 한류의 선두에 서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¹¹⁾(표 2))

드라마의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재미있는 스토리의 전개’, ‘일본과 다른 한국문화’,

드라마 제목	답변수(명)	백분율(%)
「겨울연가」	17	50
「올인」	3	9
「대장금」	18	53
「다모」	5	15
「내 이름은 김삼순」	4	12
「아름다운 날들」	3	9
「부활」	2	6

표 2)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한 응답자 수와 퍼센트(복수응답가)

‘남녀주인공의 연기’, ‘변치 않는 사랑’, ‘아름다운 영상’ 순으로 꼽았다.(표 3))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재미있는 스토리의 전개’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한류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배우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점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한류드라마 시청자들이 ‘비교적 냉철하게 드라마자체를 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기타 ‘드라마 제작 방식’이나 드라마의 ‘미술’적 구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응답도 있는데 이 역시 한류드라마의 시청이 단순한 흐름에 편승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변한다.

한류드라마 중 가장 감동받고 재미있었던 대목.	백분율
남녀 주인공의 연기	34%
변치 않는 사랑	12%
재미있는 스토리 전개	53%
일본과 다른 한국의 문화	38%
아름다운 영상	9%

표 3) 한류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었던 대목에 대한 응답(복수응답가)

그러나 역시 ‘변치 않는 사랑’을 꼽은 비율도 12퍼센트나 되고 여기에 답변한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은 사랑의 이야기가 여성들에게 적지 않게 어필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드라마 속 남녀주인공의 모습의 이미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은 대체로 예쁘고 착하며, 거기에다 순결한 이미지이다. 「여름향기」에 나오는 손예진의 옷이 송승헌을 사랑한 다음부터 흰색과 연한 파스텔톤의 옷을 입고 있다는 점, 「겨울연가」에서 보여지는 「눈(雪)」의 이미지, 「울인」에서의 송혜교의 수녀복 등은 바로 순결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치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각각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예쁘고 순결하나 가정안에 갇혀있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직장내 남녀차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인간관계에 그다지 구애받지도 않고 있다.¹²⁾ 「대장금」이나 「다모」같은 전근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도 여성들은 남다른 재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남성들과 실력대결을 하고 있어서, 드라마만 본다면 한국사회에 남녀간의 갈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 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여성은 여러 면에서 남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곳이 많으며, 시택과의 문제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주부상을 당연하게 보는 남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¹³⁾ 즉 한국의 보통의 주부들이라면 대부분 시택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적지 않으며, 남성 역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엽기적이며 폭력적이기도¹⁴⁾ 한 여주인공도 등장한다는 점이다. 「엽기적인 그녀」는 보편적 현실속에는 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 하겠으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¹⁵⁾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순종과 다소곳함을 이상으로 삼았던 사회에서 「엽기적」이기까지 한 여성의 행동이 신선한 충격을 준 것과 동시에 암전함과 다소곳함을 강요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역설적으로 대변한다고 보겠다.

한편, 남자 주인공은 대개 부자이거나 능력이 있고, 멋있고 친절하고, 게다가 한 사람의 여성을 죽도록 사랑한다. 가령, 돈 많고 능력있고 친절하고 부드러운(「겨울연가」), 강하고 끈질기고 머리 좋고 능력있는(「울인」), 전업주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인출」), 심지어 남녀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전근대사회의 남성조차(「대장금」, 「다모」 등) 한 여성에게 일편단심을 보내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¹⁶⁾. 이러한 면은 사실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데, 보통의 여성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한류드라마에는 이전의 일본인들이 「한국」하면 떠올리는 몇가지 특성들, 즉 남북 군사적 긴장과 병역부담, 학력과 교육열, 심한 경쟁사회, 권위적인 사회구조, 가문과 인맥, 종교에 대한 관심 등¹⁷⁾이 한류드라마에서는 그다지 나오고 있지 않다. 즉, 현실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 결여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남자주인공의 비현실성과 함께 러브 환타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요컨대 드라마 속에서의 러브환타지적 요소가 역시 일본의 여성들에게 가장 어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전의 러브환타지라면 미국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지리적으로도 먼 서양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동경이었으나 이제는 동양, 그것도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그려진 러브환타지에 일본여성들이 열광하는 것은 사물인식에 있어 큰 전환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해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류붐을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적인 동양인식에서 이제 동양인 스스로가 주체적 인식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지적한 것¹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일본 및 동아시아의 한류드라마 붐에서 우리는 러브환타지의 東漸¹⁹⁾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역사적 현실속에서의 여성과 한류드라마

한류의 주역이 중고년 여성이고 러브환타지, 특히 변치않는 사랑이 이들에게 어필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역사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모계제 사회에서 남성우위의 가부장제사회가 되는 시기는 국가가 성립되는 청동기 시대이후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고대의 여성이 반드시 종속되거나 하위의 존재 만은 아니었다. 중세사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²⁰⁾,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여왕이 즉위한 시기도 있었다. 유교의 도덕적 규범이 강조됨과 동시에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덕목 또한 갖추어져 갔으며²¹⁾, 여성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남성에 대한 정절을 강요받게 된 것이었다.

중세사회에 들어오면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은 더욱 제한되었고 여성의 역할은 가정내로 한정되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조선시대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고대보다 남성에게 종속되는 정도가 더 강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남성지배하에서 여성이 종속되는 현상이 현저해진 것은 조선후기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강화된 이후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²²⁾ 전근대의 봉건적 현실에서, 성리학적 질서하의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남성은 축척이 허가되어서 여러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여성들은 가정내에서 가부장의 전제하에 놓여 있었으며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²³⁾.

근대 일본에서는 천황제국가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징병과 납세의 의무를 지는 남자를 낳아 길러 보조하는 국민으로서 인식²⁴⁾되었다. 「집」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훨씬 낮아서 소위 ‘현모양처주의’ 즉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혼인, 재산관리 등 모든 주요한 일에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여 여성은 법률적으로 무능력자²⁵⁾였다. 혼인외의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엄격하게 법률이 적용되었다. 형식적으로는 1인 1처제가 원칙이었으나 남성의 축척과 외도가 공공연히 허가되는 사회분위기 속에 여성은 인내로서 자신의 처한 환경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여성도 같은 처지였다. 즉, 자립적인 근대국가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한

여성들이 적지 않게 나왔으나 사회의 몰이해 속에 지탄을 받거나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²⁶⁾ 적지 않았으며, 식민지 현실에서는 일본사회와 같은 구조적 억압에 식민지적 지배가 가중되었다.

현대 즉 전후 일본사회는 경제부흥과 고도성장속에서 마이홈을 이상으로 하여 「주부·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근대와 마찬가지로 1부 1처제가 당연하였으나 남성들은 의도가 가능한 사회분위기였다²⁷⁾. 1960~70년말까지 25세~34세의 여성의 노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²⁸⁾도 이 ‘마이홈’내로 안주하려는 경향과 관련있어 보인다. 냉전시대 보수적 윤리가 팽배했을 당시에 20~30대를 겪은 지금의 50대이상은 대체로 냉전시대의 보수적인 사고를 젊을 때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서 70년대에 ‘충효’사상이라는 전근대적 이데올로기가 현대적인 형태로 재포장되어 확대보급되었고 남편의도와 고부갈등에도 참고 순종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며, 젊은 여성의 최대의 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있었다²⁹⁾.

요컨대, 전근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남녀관계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게 한다는 점에서 한일양국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현대까지 가정과 남편을 중심으로 한 일편단심은 여성에게 강요된 윤리였던 것이며, 그것은 바로 여성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한류드라마속의 주인공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성이 한 여성만을 사랑하는 것이 한류드라마에서 환타지로 실현되고 여성들이 그것에 빠져드는 것은 과거시대에 강요당했던 여성의 억눌린 자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드라마 속에서는 참고 견디는 역은 보통 여성이었으나 한류드라마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그 역할을 한다³⁰⁾는 점도 바로 여성들의 심리적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겨울연가’의 남주인공처럼 한 여성을 사랑하는데 생겨난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업으로 받아들이는 남성의 모습³¹⁾은 과거 여성이 남성을 위해 해야했던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바로 여성의 내적으로 억압되고 강요되었던 역사적 현실의 역설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여성문제를 탐구해보는 것 그것은 바로 남녀권력구조 속에 위치지워진 여성의 현재적 상황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여성자신의 자아와 정체성 탐구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류드라마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한류 붐이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고대이전에 평등하게 누렸던 여성들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존엄성을 찾아가는 것³²⁾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4. 봄에서 이해로-국제교류와 협력의 일환으로

다시 앙케이트로 돌아가서 살펴 보자. 가장 감동적이고 흥미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38%(<표 3>참조)로 두 번째로 많았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윗사람 대하는 모습’ ‘유교적 가르침’ ‘부모자식간의 사랑’ ‘깊은 가족애’ 등 가족간 인간관계에 관심을 보인 답변이 가장 많았고³³⁾, ‘남성이 친절하고 부드럽다’ ‘남녀간의 사랑이 격렬하고 끈질기다’ 등 이성관계를 꼽은 응답과, ‘생일축하방법’ ‘음악’ ‘아역연기’ 그리고 ‘요리’ 등 한일간 문화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보인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³⁴⁾ 그런가 하면 ‘손가락 걸며 약속하는 것이 일본과 같다’ 등 일본과 같은 문화의 한 단면을 발견하는 것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웃나라의 생활문화에 대한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단편적인 것이지만 상대방문화를 이해하는데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전자제품을 소비하거나 일본대중문화상품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한 단면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차이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교류와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류의 소스인 한국의 역사문화의 이해³⁵⁾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상품이 더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 한국인에게는 아직 반일감정이 가끔씩 격렬하게 표현되는가, 야스쿠니문제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등도 과거 역사속에서의 한일관계를 제대로 아는 데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현실에는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양면의 상처가 내재하고 있다. 주목되는 한국의 대중문화상품도 이러한 양대 상처를 딛고 이루어진 것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한류붐 속에는 분단문제를 테마로 한 작품은 적지 않게 있으나³⁶⁾ 식민지 시대를 테마로 한 작품은 거의 없다. 한국이 일본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0 여년이 지났으나 식민지문제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이다. 특히 미해결 된 중군위안부문제³⁷⁾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아픈 상처를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일본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실이다. 이들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보급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한일여성문제의 시점에서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권력이 여성개인과 가족, 그리고 그 사회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여성이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상호간 이해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는 ‘한류’에 대응되는 ‘일류’라는 말이 없지만 한국인은 평생 ‘일본’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선진국이라는 것도 그 한가지 이유이며, 일본 전자제품, 게임, 만화영화, 드라마, 음식, 음악 등 이미

한국인의 생활주변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한다면 일본의 '한류'붐은 그저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류붐이 일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전에 그 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크고 작은 붐을 거침으로써 상호 이해가 진척된다면 한류붐은 하나의 통과의례³⁸⁾로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 크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여성이 가진 문제는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진다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성이 남성중심의 사회, 그리고 권력시스템에서 약자였던 것을 이번 한류드라마붐을 통해서 인식했던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 1) 이 글은 2006 년도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일본여성대회의 제 11 분과 국제교류분과 심포지엄에서 필자가 패널의 한 사람으로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小考이다.
- 2) 주영하, 「일본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 한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pp.15~17.
- 3) 小倉紀藏, 2005, 「'한류(韓流)'와 일본의 주체화」 『翰林日本學研究』 10 집,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p.8.
- 4) 채지영, 2005 『일본 한류 소비자 연구-한류 마니아와 일반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22~27.
- 5) 드라마의 진출에 비해서 코미디물은 한일교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각 나라의 웃음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일까. 최근 한국의 여성코메디언 조혜련이 일본에서 활약하며 양국간 웃음의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 6) 주영하, 2005. p.17.
- 7) 본고와 관련하여 참고한 단행본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조한혜정 외, 2003,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채지영 외, 2004, 『일본내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유통 실태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林香里, 2005, 『冬ソナにハマった私たち』, 文芸春秋.
 히라타 유키에, 2005,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小林竜雄, 2005, 『韓流、純愛、初恋病』 中央公論新社.
 채지영, 2005, 『일본 한류 소비자 연구-한류 마니아와 일반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城西国際大学, 2006, 『ジェンダーで読む<韓流>文化の現在』, 現代書館.
 주영하 외, 2007, 『일본 한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8) 첸더문제와 관련하여 한류드라마에 접근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林香里, 2005, 위의 책.

- 히라타 유키에, 2005, 위의 책.
城西國際大學, 2005, 위의 책.
- 9) 본 양케이트는 본 대학의 평생교육강좌인 아르스에서 한국어를 듣는 수강생(2007 년도)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지면을 빌어 설문에 응해 준 수강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10) 한류드라마 붐에 주역이 된 연령층이 50 대 이상의 중년여성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林香里、2005, p. 30, 김양은, 2005, 「배용준 신드롬과 한류열풍」 『언어와 문화-동아시아의 보편적 가치를 찾아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5 여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70.城西國際大學, 2006, 위의 책.), 본고의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양케이트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한류드라마의 관심이 한국어학습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 11) 그 외, 「내이름은 김삼순」, 「다모」, 「울인」, 「아름다운 날들」, 「부활」, 등이 뒤를 잇고 있고, 그 밖에도 「봄의 왈츠」, 「궁」, 「파리의 연인」, 「주몽」, 「투명인간 최장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미안하다 사랑한다」, 「폴하우스」, 「건빵선생과 별사탕」, 「호텔리어」, 「상도」, 「해신」, 「허준」 등 전연령층에서 다양한 내용의 드라마를 꼽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 한국드라마의 보급이 상당히 넓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양케이트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국어문화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던 영화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엽기적인 그녀」, 「외출」, 「내 머릿속의 지우개」, 「집으로」, 「웰컴투 동막골」 등이 있다.
 - 12) 「겨울연가」, 「내 이름은 김삼순」, 「국회」, 「대장금」, 「다모」 등.
 - 13) 지난 2002 년도 한국의 진보신문 「한겨레」의 인터넷판 토론마당에서는 명절스트레스에 대하여 온라인토론이 벌어졌고, 필자도 그 토론에 끼여든 적이 있는데, 정치사회면에서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조차도 가정에서의 남녀문제에서 만큼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 14) 「조폭마누라」, 「다모」,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눈의 여왕」 등.
 - 15) 이 영화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컴퓨터 통신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 인기를 모았고 그것이 영화화된 것이다. 엽기적이라는 말은 이 해에 유행어가 되었으며 원래 괴이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흥미를 가지고 좇아 다닌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이 말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남들보다 다르거나 퇴계 행동한다는 보통의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다. 영화로 인해 단어 의미가 인플레이션된 경우라고 하겠다.
 - 16) 조선시대 『춘향전』 등에서도 이런 구도를 볼 수 있는데 역시 당대최고의 인기소설이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높은 신분의 남성이 신분을 초월해서 신분이 낮은 여성을 사랑한다는 즐거리이다.
 - 17) 이토 아비토, 2007, 「일본한류의 역사 : 일본인의 관심과 인식」 『일본한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p.67.
 - 18) 조한혜정, 2003, 「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3.
 - 19) 여기서의 東漸은 「西勢東漸」이라는 역사학의 용어를 따온 것이다. 서구문명의 동쪽 점령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고 이 역시 오리엔탈리즘적인 서양중심의 말이나, 여기서는 인식이 동양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조금 달리 사용했다.
 - 20) 金杜珍, 1994, 「한국 古代 女性의 지위」 『韓國史 市民講座』 제 15 집, 一潮閣. p.32.
 - 21) 金杜珍, 위의 논문, p.35.
 - 22) 全惠星·金賢眞역, 1994, 「朝鮮時代 女性의 役割과 業績」 『韓國史 市民講座』 제 15 집, 一潮閣. p.113.

- 23) 井上清著, 성해준·감영희 역, 2004, 『일본여성사』, 語文學社, p.183~193.
- 24) 日韓「女性」共同歴史教材編纂委員会編, 2005 『ジェンダ-の視点からみる日韓近現代史』, 梨の木舎. p.15.
- 25) 日韓「女性」共同歴史教材編纂委員会, 2005, 위의 책, p.28.
- 26) 이배용, 1994 「한국 근대 여성의식 변화의 흐름-개화기에서 일제시기까지-」 『韓國史 市民講座』 제 15 집, 一潮閣. p.142.
- 27) 70 년대의 일본남성의 한국관광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日韓「女性」共同歴史教材編纂委員会, 2005, 위의 책, p.224. 참조.
- 28) 林香里, 2005, 『「冬ソナ」にハマッタ私たち-純愛、涙、マスコミ.....そして韓国-』, 文芸春秋. p.34.
- 29) 필자가 재학하고 있었던 70 년대 중후반의 여학교 수업시간 배정에도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중시한 경향이 뚜렷했는데,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비중으로 가정·가사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 30) 林香里, 2005, p.114.
- 31) 김호연, 2005, p.186.
- 32) 총합여성사연구회 편·최석완·임명수역, 2006, 『지위와 역할을 통해 본 일본 여성의 어제와 오늘』, p.26.
- 33) 이 대목은 객관식으로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관식 자유답변한 것이므로 퍼센트를 구하지 않았다.
- 34)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은 것 중의 하나는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눈을 붙여주는 행위’(「여름향기」)에 대해서였다. 질문을 받은 필자 역시 그것이 사소하지만 한일간 문화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 조금 놀란 바 있다.
- 35) 특히 「대장금」과 「다모」는 봉건사회의 전문직 여성을 다룬 드라마로 주인공자신의 자아실현에 그치지 않고 당대 사회전체를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이다. 가령 조선시대의 의술 및 의녀제도라든가 당시 여형사 역할을 했던 「다모」라는 신분, 그리고 조선후기 신분제도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모습 등에 관한 내용은 전통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 36) 「쉬리」, 「JSA」,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투동막골」 등
- 37) www.womenandwar.net 참조.
- 38) 이토 아비토, 앞의 논문, p.83.